

계율학과 종헌·종법, 그리고 불교교단사를 바탕으로 1990년대 종단사태를 조망한 논문집이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한 시점에 출간돼 미묘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교교단사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원두)는 2003년 개최한 세미나 '90년대 불교계의 갈등과 대립: 불교적 성찰'의 성과를 다듬어 논문집 <승가회합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최근 펴냈다.

이 책에는 인환 스님(前 동국대 교수), 원두 스님, 김광식 부천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자랑·백도수 동국대 강사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승가회합과...>은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승가의 멸종법과 제재법'에서는 율장에 따른 승단분쟁 해결 원리 및 원형, 그리고 멸종법 제도가 소개됐다. 이자랑씨는 "율에 따르면 승단으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을 뜻하는 멸민은 정식 비구에게 쉽게 적용되지 않았고, 반성과

90년대 종단분규 분석 논문

'승가회합과...' 출간 '눈길'

참회를 촉구하기 위한 일시적인 승단추방 정도가 있었을 뿐"이라며 "조계종단의 현상승려법이 멸민하의 복적 또는 재득도를 금지하는 처벌이라던 멸민은 신중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부 '승려대회와 한국불교의 미래'에서는 근현대 조계종 성립의 계기가 되는 승려대회와 조계종 징계제도의 문제점이 다뤄졌다. 원두 스님은 "1994년 4월 10일 개최된 승려대회를 계기로 출범한 개혁회의 종관장악과 개혁회의 호법부가 행한 모든 처벌은 종헌·종법에 반하는 것이고, 그 같은 종관장악이 종헌 제9조 1항 구조적·7법정법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처벌된 승려의 복권을 통한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부 '종단개혁 평가와 종교분쟁에 대한 재판'에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팀의 '종단개혁과정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가 실렸다.

불교교단사연구소 측은 <승가회합과...>이 계율과 종헌종법에 근거해 90년대 종단사태를 분석한 불교계 주요 논문집"이라며 "승단 내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제6회 제주 법화사 학술세미나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최기표·조범환·이영자 교수, 김문경 회장, 장일규 교수.

해상활동 바탕은 '관음신앙'

'해상왕 장보고의 불교 신앙적 고찰' 세미나

신라 하대 바다를 제패하고, 국제무역을 주도했던 해상왕 장보고(?~846). 중국 산둥 적산에 법화원이라는 큰 사찰을 짓는 등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었지만 불교와의 관련성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상왕 장보고의 불교 신앙적 고찰'을 주제로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와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이사장 김재철)가 공동주최한 '제6회 제주 법화사 학술세미나'는 장보고의 해상활동에 가려져 잘 부각되지 않았던 불교신앙과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화사는 장보고가 창건한 제주도의 유서 깊은 사찰로, 발굴성과를 토대로 정비가 진행중인 곳이다.

학술세미나는 김문경 해상왕장보고연구회장의 기조발표 '장보고와 불교'로 시작해, 조범환 서강대 박물관 연구교수 논문 '신라 하대 서남주군지역 선종산문의 형성'과 장보고 집단', 조영복 동국대 명예교수의 '제주 법화사 삼존동불상의 남경 이치(移置)와 전제사', 최기표 금강대 교수의 '화엄경'에 나타난 관세음보살' 발표로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장보고의 해상세력이 법화원을 중심으로 신봉된 관세음보살신앙에

의해 결속·지지되고, 이를 통해 더욱 강대해진 장보고 선단은 한반도 남부지방 선종발달에 기여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문경 회장은 장보고가 산둥 적산촌에 세운 법화원에서 관세음보살 신앙의 기능에 대해 주목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던 33의 화신으로 곳곳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에 대

라도 지역으로 외연을 넓혀갔음을 주목했다.

조 교수는 "실상산문과 쌍계사가 지리산에 위치하게 된 데는 이 지역에 북쪽선이 퍼져있어 선종 전파가 수월했고, 중앙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많은 유학승이 들어오는 길목이었던 화진이라는 항구에 가까운 서남지역에 선종사찰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선종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보고와의 관계에 대해 조 교수는 "이들 선종사

법화원, 선원·상인에 불교 전파·선종발달에 기여

당·일본 연해안 거주 신라인 화합 이끌어내

한 신앙은 항해선원과 무역상인을 중심으로 크게 유포됐다.

김 회장은 "법화원은 관음신앙과 이를 대표하는 <법화경>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당·일본의 연해안에 산재해 있던 신라인들을 아울렀다"며 "이들의 화합이 장보고 선단 해상활동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조범환 교수는 장보고 선단이 선종산문 형성에 미친 영향을 조명했다. 조 교수는 구산선문 가운데 초기에 개창된 선종사찰들이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해 전

찰은 중앙의 진골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사원전과 염전 등 경제기반을 확보하게 되는데, 선종사찰들이 이 같은 경제기반을 도적의 침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장보고의 청해진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표 교수는 <화엄경>을 통해 관음신앙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조영복 교수는 사료를 근거로 조선조 태종 당시 제주 법화사에 있던 아미타삼존불이 중국 남경으로 옮겨진 경위를 추적했다.

글·사진=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진단했다.

북측 발표자로서 나선 민족고전연구소 박영건 연구사는 <고려대장경> 번역에서의 허사처리문제를 다뤘고, 김영수 실장은 우리나라 유일의 <고려대장경> 교감문헌인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본>의 가치를 조명했다.

남측에서는 이인해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이 <팔만대장경 선역본>의 '오본율'에 대한 남북의 번역사태를 비교 발표했고, 허인섭 덕성여대 교수(고려대장경연구소 학술자문위원)가 우리말 통일대장경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9>

지구 온난화

10월 말이 돼서야 선선히 느껴질 정도로 이번 여름은 유난히 길었다. 한국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를 달아가고 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제주도에서만 보던 아열대성 고기가 울릉도 부근에서도 발견된다고 하고, 중부 지방에서도 제주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되는 절대적 요인을 밝히기는 힘들다. 하지만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와 탄산가스가 중요한 원인인다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특히 브릭스(BRICs), 즉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대국이 급격히 산업화되고 있다. 산업화는 자원의 소비와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기후 생태계의 교란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도 등으로 편리함을 즐긴다. 매년 개발되는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는 우리의 욕구를 부추긴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소비를 부추키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 아니 현대가 소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토인비는 역사가 항상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것 위에는 부정적인 것이 따라오고, 이를 다시 어우르는 새로운 시스템이 창출되어 역사가 발전한다는 뜻이다. 변증법을 인간의 정신에 적용한 것이 헤겔이고, 물질에 적용한 것이 마르크스이다. 과연 현대의 속 마치는 소비 사회를 지속가능하도록 전환하는 변증법이 있을까. 나는 그 단서를 불교에서 찾는다. 어

급속한 산업화가 기상이변 재앙 불러

소비해야 굴러가는 사회, 욕심 부추겨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은 가장 큰 국제 정치적으로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년 간 역사의 발전은 인간에게 물질적인 편리함과 인간 수명의 연장을 가져다 준 반면에 풀기 어려운 숙제도 같이 가져다주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거대한 소비의 체인 구조는 비관적인 전망만 더하게 한다. 세계경제, 사회구조가 소비하지 않으면 지탱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와 같이 인류는 소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과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이 보인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는 이러한 소비의 '진작'에 기여한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전자 공학자들의 밤낮 없는 연구 덕분에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 인공지능에서 가르쳐 주는 자동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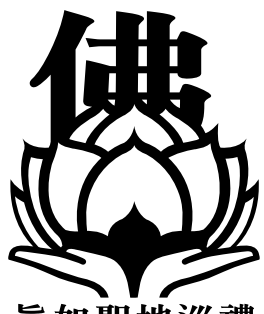
능 학자는 불법이 반복 법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님은 원리만을 가르쳤고 세세한 세상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열반 가까이 하신 말씀, "나는 한마디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마음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불성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표현하셨을 것이다.

사회이 허락되는 소비사회에서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변증법은 바로 각자가 가진 불성을 발견하는 것 아닐까. 불성을 통해서만,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려는 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면에서 불법은 반복 법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 모든 중생을 구하는 완전한 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眞如聖地巡禮 예약 및 문의 02) 2076-9511~2

Se-A-Chim Travel Co., Ltd.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4번지 고려빌딩 715호

成道齋日(음 12월 8일)을 맞아 떠나는

부처님의 고향 "인도" - 불교 성지순례 -

※ 모든 식사는 호텔식이고, 입맛에 잘 맞습니다.

창사 기념 11월 한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9월 1,890,000 ▶ 11/10,17,24 1,990,000 ▶ 12/1,8,15,22,29 1/5,12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1,990,000 ▶ 11/13,20,27 11월 2,190,000 ▶ 12/4,11,18,25 1/1,8

- 여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쿠쉬나가르(1)-파트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1)-샤르나트-바라나시(1)-아그라-델리
특징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 왕사상, 나라나 대학, 룸비니, 쿠쉬나가르, 열반당, 샤르나트, 갠지스강, 마하보디사원, 니련선화 및 수컷타 마을, 등

- 여정 : 델리(1)-파트나(1)-나라나-라지기르(1)-부다가야(2)-샤르나트-바라나시(1)-쿠쉬나가르(1)-룸비니(1)-쉬라바스티(1)-력나우-델리(1)
특징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 왕사상, 룸비니, 쿠쉬나가르, 열반당, 샤르나트, 갠지스강, 마하보디사원, 니련선화 및 수컷타 마을, 죽림정사, 다덕스토파, 나라나대학유적지, 영취산, 등

中國 상해/소주/항주 불교 문화탐방

549,000 4월 ▶ 11/14,21,28(매주 월요일)

- 여정 : 인천-상해(1)-소주-항주(1)-상해(1)-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육불사, 홍구공원, 정선사, 용화사, 서커스 관람, 영안사, 한산사, 흥정원, 발맞사지 체험, 서호유람, 동방명주탑

中國 북경 불교 문화탐방

549,000 4월 ▶ 11/9,10,14,16,17,21,23,24,28,30(매주 월요일, 수, 목요일)

- 여정 : 인천-북경(3)-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자금성, 써커스 관람, 만리장성(케이불가), 용경협(유람선), 천단공원, 이화원, 유리창
영광사 및 불아사리탑(부처님 치아 사리), 벽운사 및 오백나한당

日本 동북 사찰순례

699,000 4월 ▶ 11/14,21,28(매주 월요일)

- 여정 : 인천-아키타-히라야마-하나마키(2)-모리오카-다자와(1)-아키타-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흑석사, 존조사, 모월사, 금색대관음, 뉴토운전, 이와테성 유적지
온천호텔 4인1실 기준(2인1실/1인 6만원 추가)

日本 북해도 불교 문화탐방

699,000 4월 ▶ 11/9,13,16,20,23,27,30(수,일)

- 여정 : 인천-치토세-노보리베초(1)-무로란-토야(1)-오타루-삿포로-요전제(1)-삿포로-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아이누민속촌, 지옥계곡, 쇼와신사, 공목장, 분화구, 토야호수유람선, 후키다사역사, 무로란 만계사찰, 삿포로 동분원사 사찰
온천호텔 4인1실 기준(2인1실/1인 6만원 추가)

中國 성도/낙산/아미산 성지순례

899,000 6월 ▶ 11/10,17,24(매주 목요일)

- 여정 : 인천-성도(1)-낙산-아미산(2)-성도(2)-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아미산에서 금정-케이불가 왕복, 만년사-케이불가 편도 포함
보국사, 복호사 관광 포함

中國 성도/낙산, 티벳 성지순례

1,599,000 8월 ▶ 11/8,15,22,29(매주 화요일)

- 여정 : 인천-성도(1)-라씨(1)-시가체(1)-장체(1)-라씨(2)-낙산-성도(1)-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라씨(노부린카, 색람사, 철봉사, 포탈라궁, 대소사, 팔각사 순례), 시가체(자스투부스 순례), 장체(백기사, 압모호 순례)

공동여행: 15명 이상 출발, 1급이상 호텔 이용, 1억원 배상 여행사 보험, 관광진흥 기금, 전쟁 보험료, 유류할증료 포함, 국적 항공사 이용 / 가이드 및 운전기사, 인솔 안내원 팀 불포함. 여행 불편 신고 전화 : 02-2076-9500